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클러스터의 정책과제와 재활성화 방안

- 대도시 경쟁력과 귀금속·보석 산업
-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클러스터의 정책과제
-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클러스터의 현황
-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클러스터의 재활성화 방안

대도시 경쟁력과 귀금속·보석 산업

- 대도시 경쟁력의 원천인 도심 산업경제
 - 20세기 후반에 세계화와 국제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도시가 지역간 경쟁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대도시 경제를 선도하였던 도심의 경쟁력이 국가와 지역 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음.
 -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대도시 도심은 제조업 주도에서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주도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은 전통적인 제조·유통업과 새로운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이종교배(cross-fertilization)와 전문화(specialization)를 이루는 복잡한 산업생태계를 나타냄.
 - 이렇듯 복잡한 산업생태계가 배태된 대도시 도심에 전통 산업과 신산업 모두에서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대도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관건이 되고 있음.
- 대도시 도심형 귀금속·보석 산업클러스터
 - “귀금속·보석을 장식품의 형태로 기획(디자인), 제조(세공)한 후 소비자에게 유통·공급하는 산업”인 귀금속·보석 산업은 의류패션 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주도성, 창조적 지식과 숙련노동에 대한 의존성, 강력한 문화적 지향성이란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몇 가지 특성이 중첩되어 귀금속·보석 산업은 전통적으로 창조성/유행/소비/문화의 결절지점이자, 최근 산업구조 전환이 활발한 대도시 도심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클러스터(cluster)가 발달해 있는 대표적인 도심형 산업임. LA나 뉴욕, 암스테르담, 파리, 동경 등 대도시에 유명 귀금속·보석 중심지가 있는 것도 이러한 입지특성의 소산이라 할 수 있음.

- 도심의 귀금속·보석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변화에의 적극 대응,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이를 위한 기업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 창조성과 숙련도를 가진 인력 배양, 적절한 입지요건의 확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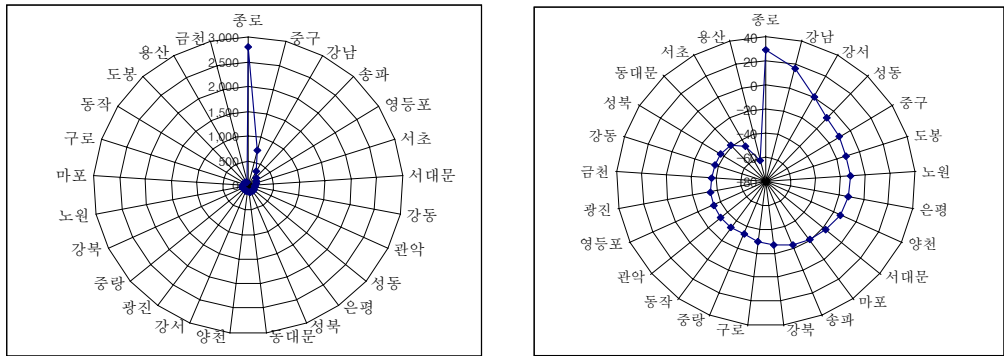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클러스터의 현황

○ 귀금속·보석 산업의 구성과 발전 과정

- 제품 기획(디자인) 부문, 세분화된 공정의 제작 부문, 유통·판매 부문, 연관 산업 부문 등 복잡한 가치체인으로 구성된 귀금속·보석 산업클러스터는 크게 귀금속·보석 제조업, 도매업·소매업, 기타(도금·모조 장신용품 제조)로 구분됨.
- 귀금속·보석 산업은 70년대에 수출대체전략의 일환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힘입어 80년대 중반부터 내수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함. 이 과정에서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보석 집적지도 성장을 시작함.
- 1991년 보석수입 전면자유화를 계기로 다시 급성장한 귀금속 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와 해외 명품 수입확대 등으로 시장규모 축소와 내수불황을 경험하였으나, 신 유통업체의 출현, 디자인중시 패션주얼리 제품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의 대중화, 수출시장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해 가고 있는 중임.
-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여건변화로 귀금속·보석 산업의 미래는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어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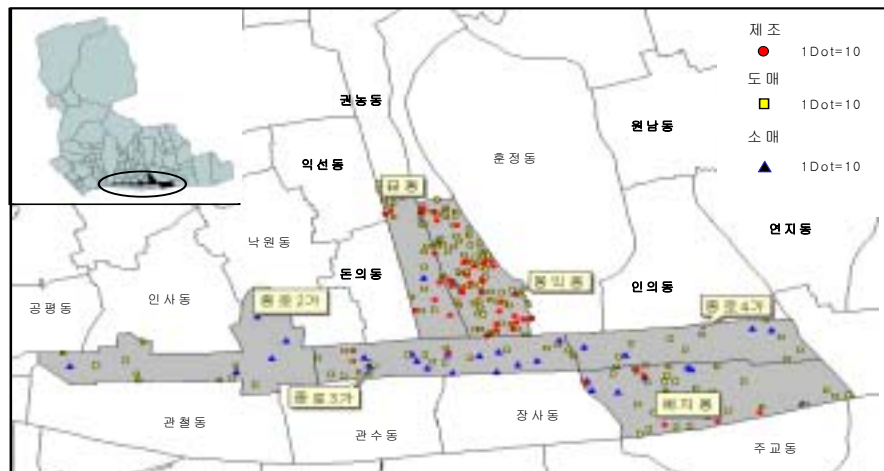
○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의 현황

- 부침을 거듭해 온 국내 귀금속·보석 산업의 산 역사이자 견인차인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은 지난 십수년간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음.
- 2003년 현재, 서울에는 총 7,193개 귀금속·보석업체가 있으며 이 업종에 19,805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종로구에만 2,630개(36.6%) 사업체가 있고 6,388명(32.3%)이 종사하고 있음.



[그림 1] 귀금속 산업의 주요 현황(좌: 2003년 구별 사업체수, 우: 1993~2003년 사업체 성장률)

- 종로구의 귀금속·보석업체 가운데 도매업체는 전체의 66.4%인 1,745개(제조업체는 629개, 소매업체는 415개)인데, 이는 서울시 전체 귀금속 도매업체의 83.9%(제조업체는 67.8%)를 차지하는 규모임. 이와 같은 도매업 중심 구조는 풍부한 수요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대도시 도심의 입지특성을 반영하는 것임.
- 지난 10년 동안 사업체는 28.1%, 종사자는 42.4% 증가하여 현저한 성장세를 보였음. 이는 동기간 서울 전체적으로 사업체 8.2% 감소와 종사자 11.8% 증가를 보인 것과 크게 대비되는 바, 종로구의 귀금속·보석 산업이 서울 전체 동종산업 성장을 선도했다고 볼 수 있음.
- 국내의 선도적 집적지인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은 내부적으로 장소특정적인 입지특성을 보임. 종로구 전 사업체의 93%가 봉익동(40.6%), 종로1~4가동(25.1%), 예지동(16.1%), 묘동(8.7%)에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규모가 큰 (제조)업체가 이전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임.



[그림 2]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

- 종로1~4가동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상가가 집적된 일종의 코리도(corridor)로서 최적의 소매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물리적 낙후성이 상당한 위험요인이므로, 향후 적정 수준으로 집적지를 관리하면서 선형으로 형성된 공간구조를 극대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이 요구됨.
- 묘동·봉익동 일대는 국내 최대의 제조 및 도매 집적지로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긴밀한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나, 업체의 영세성, 제조 및 유통 공간의 난립과 부족, 열악한 물리적 환경 등이 제약요인임.
- 예지동의 경우 최근 그 성장세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 더욱이 청계천 복원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진행 추이에 따라 일대의 토지이용과 공간구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함.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클러스터의 정책과제

- 기회와 위기 속의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
 -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규모로 발전한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클러스터는 국제적 수준의 세공기술력, 관련 업체들의 공간적 집중, 풍부한 인력의 보유 등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패션주얼리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의 성장, 수출잠재력의 제고,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활성화 등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업 환경과 취약한 기업 역량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통합적 리더십의 부재
 - 지난 20여년에 걸친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클러스터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으로 복잡하게 분화·발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가 지배적인 양상을 보임.
 - 사업체가 영세하여 시장을 선도할 업체의 발전이 지체되고, 업계 관련단체들 또한 복잡하고 중층적인 세분화로 인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이 어려워, 통합적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협력적 거버넌스 결여는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과도한 가격경쟁과, 불합리한 관행을 조정·지도할 수 있는 채널의 부재를 가져와 귀금속·보석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여건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향후 종로 귀금속·보석 업계 전반을 조정·지도하고,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합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즉 업계의 다양한 관련 주체들로 구성된 선도적인 추진체제의 확립이 요구됨.

○ 영세한 사업시스템과 취약한 혁신역량

- 귀금속·보석 산업은 소비자 주도적이며 문화적 지향이 강한 창조적 지식기반산업임. 따라서 기업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에 기초한 지속적인 혁신(디자인 및 공정혁신 등), 창조적 지식과 인력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임.
- 업계의 생산기술 수준은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에 힘입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혁신활동이 미흡하고 그 방식 또한 사업주 개인의 오랜 경험이나 모방에 기초한 전통적인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 특히, 디자인 혁신과 관련하여 모방이 용이한 사업문화는 업체의 디자인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있음. 최근 공식 교육기관을 통해 많은 전문디자이너가 배출되고 있으나 현실 감각과 시장성을 균형적으로 갖춘 역량있는 디자이너는 부족함.
-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취약한 브랜드 파워, 소매상의 난립과 프랜차이즈 위주의 단순한 유통채널을 탈피할 수 있는 혁신적 마케팅 기법의 부재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임.

<표 1> 혁신활동 수행 내용

(단위: 개, %)

혁신활동의 수행 여부												
구분	없다				있다				계			
비중	58.3				41.7				100.0			
혁신활동의 수행 내용												
구분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				새로운 생산기술을 도입				새로운 유통기법을 도입			
횟수	3회 미만	3-6회	7-10회	11회 이상	3회 미만	3-6회	7-10회	11회 이상	3회 미만	3-6회	7-10회	11회 이상
계	36	21	11	5	61	8	4	0	59	11	1	2
총계	73				73				73			
디자인 수행 방식												
구분	직원의 직접디자인	타업체의 모방	전문업체의 의뢰	소속디자이너 활용	외부 공모	자체디자인 없음	해외브랜드 모방	기타	합계			
비중	14.9	13.1	18.9	20.6	2.3	6.9	16.6	6.9	100.0			

○ 우수 인적자원 양성 및 수급체계의 미비

- 세공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제작기술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존재하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고급인력들은 이직률이 매우 높고, 이를 대체할 신규 인력들은 전문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도나 실무경험 면에서 제한적이어서, 인력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함.
- 귀금속업체들이 인력충원과정에서 겪는 애로 요인에는 인건비 상승 외에,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잦은 인력이동 등이 있음. 더욱이, 인력들이 디자인 부문을 선호하고 세공 부문을 기피해서 세공 분야 인력이 매우 부족함.

<표 2> 인력 충원과정에서의 애로 요인

인력충원 과정에서의 애로점	교육기관과 연계 부족	디자인 인력의 편중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	인건비 상승	인력모집 비용증가	취업 지원기관 부재	잦은 인력 이동	기타	합계
비중(%)	2.3	3.4	28.6	39.4	2.3	4.6	18.9	0.6	100.0

- 경영여건이 영세한 가운데 최근 시장이 축소되면서,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신진 디자이너 등 우수 인적자원을 훈련하고 실무적 감각을 배양할 때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실정임.

○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리한 산업입지 환경

- 귀금속·보석이 가진 고품격의 산업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종로 일대는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된 탓에, 도로정비 불량, 주차공간 부족, 간판 난립, 노점상으로 인한 보행 공간 침해 등 귀금속·보석의 이미지와는 상충되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열악한 환경요소들이 산재해 있음.
- 열악한 환경조건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장 수요를 더욱 악화시키는 한편, 물류비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
- 소규모 필지 분할, 저층중심 건물군락, 전통가옥 위주 등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패턴과 공간구조는 클러스터 경쟁력의 핵심 요건인 기업간 긴밀한 연계와 집적을 통한 생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어렵게 하고, 신규 공간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3] 종로 일대 귀금속 집적지의 물리적 환경 여건

<표 3> 도심 및 청계천 주변지역의 토지 및 건축 현황

구 분	도심	청계천
토지필지규모	20평 미만이 전체의 51.1%	20평 미만이 전체의 52.2%
건물 층수	5층 이하가 전체의 92.5% 2층 이하가 전체의 54.0%	5층 이하가 전체의 92.7% 2층 이하가 전체의 42.5%
건축물 구조	목조가 40.8%, 조적·연와조가 20.2%	목조가 38.0%, 조적·연와조가 24.5%
건축물 건축연도	30년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69.5%	30년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68.7%

자료 :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2001)」에서 재구성

- 이러한 비효율적 입지조건이 업체의 과잉집적 및 추가 유입과 결부될 경우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인근 지역으로 이 문제가 확대 재생산될 소지가 있음.

<표 4> 종로 귀금속 집적지에 대한 경영 및 입지환경 평가

경영 및 입지 환경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① + ②	경영 및 입지 환경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① + ②
점포확보 용이성	12	16.6	28.6	지식습득 용이성	0.6	6.3	6.9
임대료 및 권리금 수준	31.4	36	67.4	유통구조	6.9	21.1	28
교통편리	1.1	4.6	5.7	영업 마진	38.9	33.1	72
주변환경의 쾌적성	14.9	45.7	60.6	업체간 경쟁	32.6	34.3	66.9
근린시설 및 편의시설	19.4	49.7	69.1	업계관행	19.4	36	55.4
인력수급용이성	1.7	13.7	15.4	조세정책 및 행정규제	21.7	41.7	63.4
거래업체의 접근성	1.1	5.7	6.8	협회 및 조합의 지원	16	42.9	58.9
동종업체의 집중	1.1	5.7	6.8	정부 및 지자체 지원	29.1	50.9	80

○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미비

- 독자적인 산업화가 있기 이전에 제정된 귀금속·보석관련 각종 법률과 제도 또한 귀금속·보석 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임.
- 귀금속·보석 세공업은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 업종으로 지정되어 그간 단속 대상이 되었고, 업체의 신규 설립과 이전도 법적 제약을 받고 있음. 그러나 세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미세한 귀금속·보석이 함유된 세척용이 대부분으로 업체 스스로 폐수처리를 통해 잔여물을 수거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음.
- 귀금속·보석이 사치품이라는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원료나 제품 거래에 관세나 특소세와 같은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세제 개선이 업계의 가장 큰 현안과제임.
- 귀금속·보석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네거티브 제도를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함.

1) 특소세의 경우, 과세적용 기준 가격은 200만원으로 100분의 20을 세율로 부과하며, 경쟁국의 무관세에 대비하여 귀금속·보석 지금(地金, 소재금속 덩어리)에 대한 관세 3%를 부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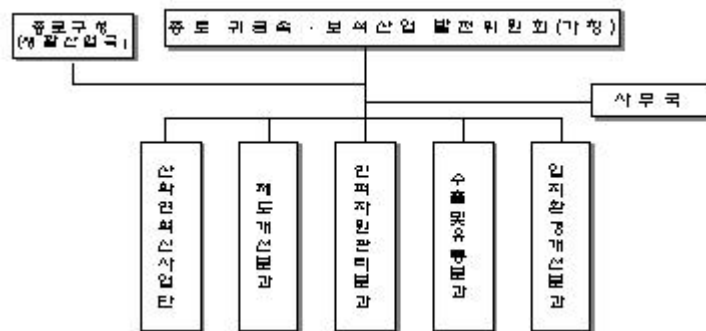
종로 귀금속·보석 산업클러스터의 재활성화 방안

○ 정책의 기본방향

- 국내 귀금속·보석 산업을 선도하며 서울 도심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종로 귀금속 산업은 많은 강점과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재도약을 위해 몇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음.
- 당면과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산업시스템의 질적 고도화', 즉 기획·디자인·제작·유통 등 가치 체인 전반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과 '클러스터의 효율화', 즉 열악한 물리환경적 입지요인을 개선·재정비하여 기업간 집적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귀결됨. 이와 같은 두 가지 기본 방향을 놓고, 이를 구체화하는 주요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함.

○ 선도적 추진조직인 (가칭)'종로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 향후 업계 전반을 조정·지도하고,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조직화와 친목 위주의 분파적 이해추구를 떠나 종로 귀금속·보석업계 전반을 선도하는 (가칭)'종로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함.
- 동 위원회는 장·단기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선도주체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주체로서, 산업발전에 요구되는 지원환경을 조성·제공하는 지원주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개의 산하 분과위원회를 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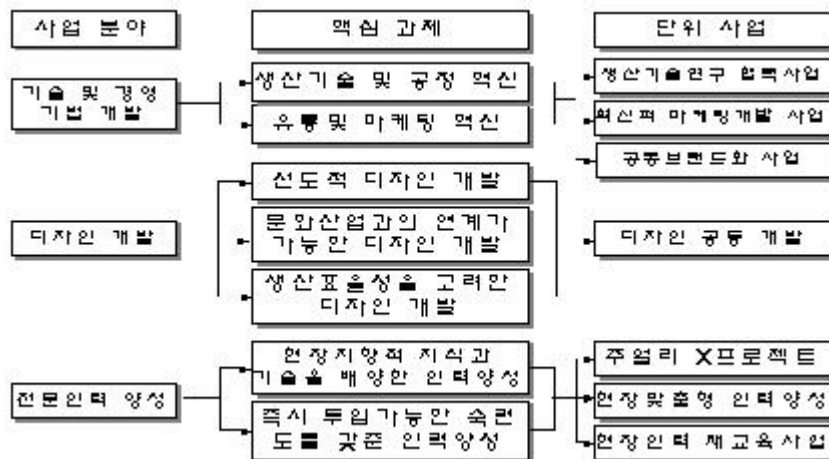
[그림 4] (가칭)'종로 귀금속·보석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체계

- (그림 4)의 분과위원회 중 산·학·연 혁신사업단은 산·학·연 협력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입지환경개선 분과위원회는 종로 귀금속·보석집적지 일대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산업시설 및 공간을 확충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산업발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기초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제도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동 위원회의 운용 및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발전기금을 조성하되 공공부문이 이를 적극 지원함.

○ 미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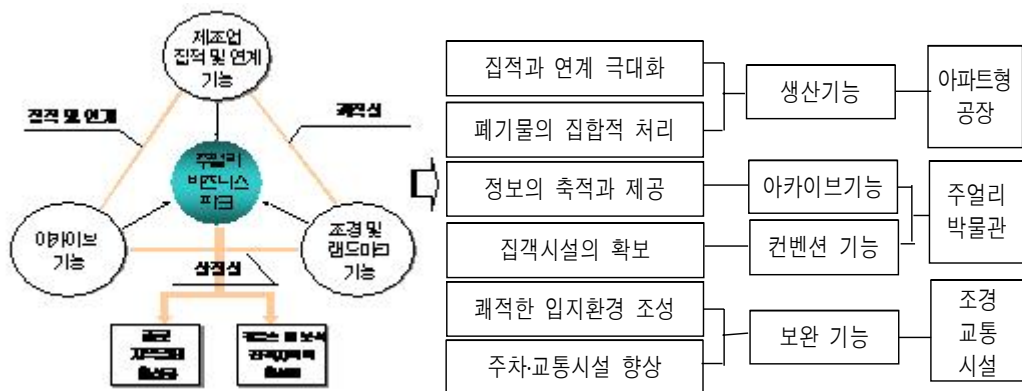
- 선도기업 육성과 개별업체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귀금속·보석 산업에서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사업에의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산하 산·학·연 혁신사업단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되, 업계와 학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 컨소시엄'(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지역 컨소시엄형)을 구성하여 핵심사업 분야와 단위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함.
- 3대 핵심사업 분야로는 기술 및 경영기법 개발/창조적 디자인 개발/전문인력 양성을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다시 세부 단위사업을 실시함(그림 5 참조). 이 경우, 가령 '생산기술 연구 협력사업'은 서울시의 산·학·연 협력사업 가운데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이나 서울형 미래 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에, '디자인 공동개발사업'은 서울형 미래 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이나 산·학 협력단 활성화 지원사업에의 참여가 가능함.
- 산·학·연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적 조건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선 주기적 사업설명회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주체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사업 추진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그림 5] 분야별 핵심 과제 및 단위사업

○ 친환경적 '주얼리 비즈니스파크'(Jewelry Business Park) 조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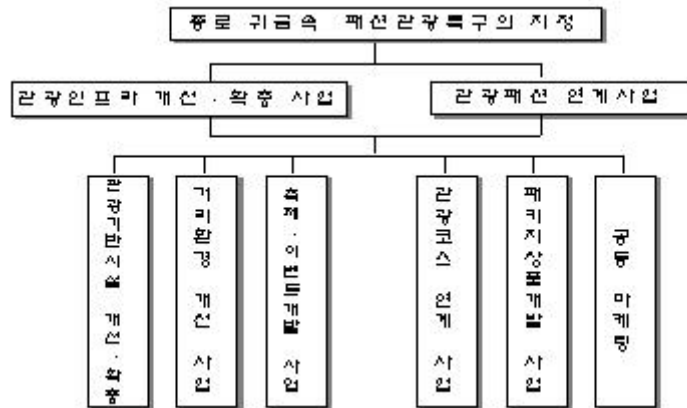
- 종로의 귀금속·보석 집적지 일대의 열악한 입지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얼리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함. 이 사업은 위원회 산하 입지환경개선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사업 효율화를 위한 별도 추진조직 설치 및 이의 법인화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업은 크게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주얼리 비즈니스파크 조성 기본구상 수립→사업시행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사업 완료 후 평가 및 보완 등 4단계를 거쳐 추진됨. 이 경우에 진흥지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의의가 크며, 이를 통해 토지 용도별 행위제한이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을 완화가 가능해질 수 있음.
- 주얼리 비즈니스파크는 열악한 제조 환경과 비효율적 공간 활용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화된 생산지원시설로서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조성하며, 이를 통해 집적지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과 대외 홍보와 같은 부수효과도 기대됨.
- 동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사전 입지수요 추정 및 입지결정, 상세 공간배치계획 등이 필요한데, 입지수요 추정시 실질수요 외에 잠재수요도 고려해야 하고, 입지선정기준으로는 제조 중심성 및 상징성, 공간 활용성 및 개방성 등 4가지 기준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집합적 생산 기능/아카이브 기능/컨벤션 기능/보완 기능을 부여하고, 이들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아파트형 공장, 주얼리 박물관, 주차·교통시설을 건립하고 조경·녹지를 조성함. 주얼리 박물관의 경우,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실, 디자인 랩과 세미나 룸 외에 각종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을 확보함.



[그림 6] 사업의 기본 구상과 기능 및 시설

○ 종로 귀금속 패션관광특구 지정 및 연계활성화 사업

- 동 사업은 문화산업이자 관광자원으로서의 귀금속·보석 산업의 특성에 기초하여 도심내 관광산업이나 의류패션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며, 이는 대내적으로 업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패션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관광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패션·관광 연계사업 추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구 지정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특구계획 수립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합의형성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철저적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함.
- 동 사업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인프라 개선·확충 사업과 패션·관광 연계사업의 두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음. 관광인프라 개선·확충 사업으로는 종로 주얼리광장 조성, 관광안내시설 및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기반시설의 개선·확충 사업, 주요 지구 및 거리별 브랜딩(Branding), 각종 조형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거리미관개선 사업, 다양한 콘텐츠의 축제·이벤트 개발 사업 등의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그림 7] '종로 귀금속·보석 패션관광 특구' 사업의 주요 내용

- 패션·관광 연계사업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 일대의 역사문화관광벨트, 동대문·남대문·이태원·인사동 일대의 관광 및 전통문화지구를 연계하는 관광코스 연계 사업과 패키지상품 개발 사업을 실시함.
- 관광코스 연계사업으로, 관광행태와 관광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4가지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사업주체로서 해외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와 발전위원회가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함.

- 패키지상품 개발 사업의 경우, 귀금속과 의류패션이 토탈 패션으로 수렴된다는 점을 착안해, 제품 상호간의 이미지나 기능에 부합하는 연계상품을 개발함. 이 경우 귀금속과 의류패션 제품이 연계된 신상품의 공동개발과 기존 제품의 연계 판촉전략 등이 모색될 수 있음.

정병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223
jbs66@sdi.re.kr